

# 經濟學方法論의 爭點

趙 誠 煥\*

<目 次>	
I. 序論	2. 經濟模型의 形式化와 經驗的 根據의 稀薄
II. 經濟學의 定義: 「部分」과 「接 近」의 對立	3. 經濟現象의 性質과 一般化
III. 經濟學의 科學性	IV. 價值觀의 役割
1. 假定의 現實性의 問題	V. 結論

## I. 序 論

모든 學問에 있어서 方法論 論爭처럼 非生産的인 徒勞는 없다고 한다. 특히 論理學의 科學方法論, 科學哲學 또는 認識論 등의 哲學分野에 門外漢인 한 經濟學徒로서 經濟學方法論에 관한 基本的인 問題點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더욱 無理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經濟學分野에서 그럭저럭 半平生을 보낸 「開業者」의 한 사람으로서 自己의 「業種」의 存立根據와 直結된 一聯의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왔고 또 筆者 自身이 평소에 어떻게 느껴왔는가를 共通된 利害關係를 가진 여러분과 더불어 論議하는 것은 그나름대로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方法論(methodology)이란 엄밀히 말해서 哲學 또는 論理學의 한 分野이다(學者에 따라서는 오히려 論理學을 一般方法論의 一部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方法論에 관한 形式上的 定義는 哲學者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내려졌으나 대체로 大同小異하다고 하겠다. 經濟學의 「內生的」인 方法論者(endogenous methodologist)라고 볼 수 있는 매클럽(Fritz Machlup)教授가 내린 다음의 定義가 적절하다고 본다. 方法論이란 「어느 知識分野에 종사하는 學徒이든 간에 어떠한 命題를 自己分野의 科學的 知識體系의 一部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의 與否를 決定하는 基準이 되는 諸原則에 관한 研究」(the study of the principles on the basis of which students of any field of knowledge decide whether to accept certain propositions

\*西江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as parts of the body of their sciences)라고 하였다.<sup>(1)</sup> 이와 같이 方法論은 分析의 方法(method) 또는 技法(technique) 그 自體가 아니며 어떤 方法을 채택할 것인가 또는 기각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合理性을 提供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方法論의 立場에서 같은 方法이 正當化될 수 있으며 또 같은 方法論의 立場에서 서로 다른 研究方法이 正當化될 수도 있다.

그러나 筆者는 이와 같은 形式上의 定義보다 넓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經濟學方法論의 問題點뿐만 아니라 經濟學의 本質에 관한 다른 문제에까지 擴大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렇게 擴大解釋하는 直接的인 動機는 一般方法論에 관한 筆者自身の 知識의 不足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좁고 길게 파고들지 못하는 것을 넓고 얇게 다루어서 補償코자 하는 心理에서 나왔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經濟學內部的 사정을 좀 더 살펴보면 方法論上의 問題點뿐만 아니라 經濟學의 定義, 對象, 領域에 이르기까지 經濟學들 사이에 뚜렷한 合意點조차 찾기 어려운 實情이다. 이것이 筆者에게 주어진 課題를 擴大解釋하게 하는 보다 根本的인 理由라 正當化하고 싶다.

經濟學研究의 方向, 內容, 方法 등이 根本的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經濟學界內部的 支配的인 見解라 하겠다. 近年의 英·美經濟學會의 歷代會長들의 「自虐的」인 就任辭가 바로 이것을 잘 代辯하고 있다. 먼저 美國經濟學界를 보자. 보울딩(K. Boulding)교수의 美國經濟學會(A.E.A.) 會長就任辭(1969)에서 現實世界는 效用函數의 相互依存性(inter-dependence)이 支配的인데 이를 否定하는 파레토最適性에 근거를 두는 厚生經濟學은 無益有害하다고 공박하였다.<sup>(2)</sup>

投入·產出分析에 대한 獨創的인 공헌으로 「노벨」賞을 받은 레온티에프(W. Leontief)는 A.E.A. 會長就任演說(1971)에서 自身の 專門分野인 數理經濟理論이 그 經驗的 基盤이 弱하고 그 假定(assumptions)들이 確證되지 않았기 때문에, 現實과 無關한 理論이 되었다고 實吐하였다.<sup>(3)</sup> 正統經濟學派에 대하여 언제나 批判的 立場을 취하는 갈브레이드(J. Galbraith)교수의 A.E.A. 會長 취임사(1972)에서 新古典學派 및 新케인즈學派의 經濟學은 國家權力과 政治的 要素를 考慮하지 않았기 때문에 現實과 乖離되었다고 공박하였다.<sup>(4)</sup> 고오든(R.A.

(1) Fritz Machlup 教授가 Princeton大學校에서 1975年度 가을學期에 강의한 「社會科學方法論」 실라버스(syllabus)에서 引用함.

(2) K. Boulding,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 1969, pp.1-12.

(3) W. Leontie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Non-observed Fac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 1971, pp.1-7.

(4) J. Galbraith, "Power and the Useful Economist," *American Economic Review*, Mar. 1973, pp.1-11.

Gordon)교수의 A.E.A.會長 취임사(1975)에서는 오늘날의 經濟科學(economic science)의 核心部分을 이루고 있는 數理經濟理論과 計量分析方法이 嚴密性(rigor)에 치우쳐 現實과의 關聯性(relevance)이 매우 희박하여 重大하고 時急한 現實的인 문제들을 外面한다고 개탄하였다.<sup>(5)</sup> 또한 블랙만(J.H. Blackman)교수는 美南部經濟學會의 會長就任辭(1971)에서 數理經濟模型은 自體의 內在的 屬性에 따라 獨自的 發展을 하게 되어 現實과 더욱 더 멀어지는데 반하여 이 分野를 專攻하는 學者들에 대한 報酬 및 昇進機會가 매우 좋아서 資質있는 經濟學徒가 이 分野에 몰리기 때문에 具體的인 現實問題를 더욱 더 外面하게 된다고 不平하였다.<sup>(6)</sup> American Finance Association의 會長就任辭(1973)에서 마이젤(S. Maisel)교수는 金融經濟理論의 大部分은 극히 制限的이거나 아주 틀린 假定위에 세워져 있고 그 經驗的 檢證을 外面하였기 때문에 「操作不可能」(non-operational)하다고 결론을 내렸다.<sup>(7)</sup>

이제 大西洋 건너 英國의 經濟學界를 살펴봐도 사정은 꼭 같다. 一般均衡理論을 더욱 크게 發展시킨 張本人인 하안(F.H. Hahn)교수는 Econometric Society의 會長就任辭(1968)에서 어느 누구도 過去, 現在, 未來에도 결코 나타날 수 없다고 確信하는 一般均衡의 經濟狀態의 分析에 自身을 포함한 많은 經濟學者들이 계속하여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는 自己矛盾을 슬프게 여긴다고 告白하였다.<sup>(8)</sup> 워즈윅크(G.D.N. Worswick)교수는 British Association of the F-section의 會長就任辭(1971)에서 經濟學의 業績이 失望的인 것은 經驗的 事實이 經濟分析의 道具에 알맞게 나타나 줄 때만 그 道具의 威力이 나타난다고 비꼬았다.<sup>(9)</sup> 펠프스브라운(E.H. Phelps Brown)교수는 英國王立經濟學會(R.E.S.)의 會長就任辭에서 現行經濟學은 그 名聲에 비하여 그 有用性이 매우 적은데 이것은 人間行動에 대한 經濟理論의 假定들이 「하늘에서 따왔기」(plucked from the air)때문이라고 斷言하였다.<sup>(10)</sup>

물론 여기에다 近代經濟學에 內在되어 있는 價値判斷에 관한 뮈르달(G. Myrdal)교수 등의 批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經濟學主流學派에 대한 歐美의 左傾急進派의 正統經濟學에 대한 反體制的 批判은 더욱 否定的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5) R.A. Gordon, "Rigor and Relevance in a Changing Institutional Setting,"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76, pp.1-14.

(6) J.H. Blackman, "The Outlook for Economics," *Southern Economic Journal*, April 1971, pp.385-95.

(7) S. Maisel, "The Economics and Finance Literature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Finance*, May 1974.

(8) F.H. Hahn, "Some Adjustment Problems," *Econometrica*, Jan. 1970, pp.1-17.

(9) G.D.N. Worswick, "Is Progress in Economic Science Possible?" *Economic Journal*, March 1972, pp.73-86.

(10) E.H. Phelps Brown, "The Underdevelopment of Economics," *Economic Journal*, March 1972, pp.1-10.

위에서 引用된 英·美經濟學會의 歷代會長들의 自我批判은 現行經濟學의 本質과 方法論에 관한 經濟學者들의 理解와 그들의 研究作業의 慣行에 根本的인 잘못이 있음을 明白히 해준다. 反面에 이것은 經濟學이 그만큼 生氣있고 계속 發展되는 學問分野임을 말해 준다 고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떻든 方法論의 어느 한 두 가지 側面的 爭點보다는 學問全般에 걸친 爭點들을 論議의 對象으로 삼는 것이 無理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 II. 經濟學의 定義 : 「部分」과 「接近」의 對立

다른 學問과 마찬가지로 經濟學이 獨立된 學問으로 生成·發達되어 오는 동안 그 對象과 領域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온 적이 없었다. 時代와 學者의 立場에 따라 經濟學의 定義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對象으로 하는 學問이라고 規定되어 왔다. <sup>(11)</sup>

- 1) 家計의 管理 : 아리스토텔레스
- 2) 國富 : 스미드
- 3) 物質的인 福祉 : 마아샬
- 4) 自己利益의 追求 : 밀
- 5) 價値尺度인 貨幣가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것 : 피구
- 6) 市場, 價格 및 市場을 통한 交換 : 카셀
- 7) 一定量의 稀少한 資源에 대한 相互競爭的인 여러 目的 또는 用途사이의 配分 : 로빈스 (Lionel Robbins)
- 8) 合理的인 人間行動의 論理 : 미제스(Ludwig von Mises)

이상의 여덟 가지 定義들은 經濟學의 對象에 대한 두 가지 相異한 見解로 區別하여 對立시켜볼 수 있다. 1)부터 6)까지의 定義는 社會生活을 여러 側面으로 나누고 經濟學은 經濟的 側面을 다루는 知的인 分業이라고 보는 立場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經濟現象을 人間생활의 한 部分으로 보는 見解이다. 7)과 8)은 經濟學을 社會生活에 대한 接近方法(approach) 또는 解釋(interpretation)이라고 보는 見解를 말한다. 經濟學界의 최근 동향을 보면 경제학을 社會生活의 한 「部分」의 研究로 보는 見解에서부터 점차 벗어나서 社會生活의 「解釋」으로 보는 견해로 나아가고 있으나 學者間에 아직 뚜렷한 合意를 보지 못하고 있다.

(11) A.A. Brown and J.E. Elliott, "Scope and Method of Economic Analysis," Brown *et al.* ed., *Perspectives in Economics*, pp.1-13.

經濟學을 社會生活의 한 部分의 研究로 보는 見解는 經濟學의 研究對象을 필요 이상으로 制限시키거나 研究方向을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結論을 갖고 있다. 經濟學者가 社會의 富나 人間福祉의 物質的 側面에 자기의 研究를 局限시켜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경제학은 社會科學이므로 人間과 人間간의 關係에 당연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財貨(goods)뿐만 아니라 用役(services)이나 餘暇(leisure)도 연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經濟分析이 個人利益의 追求, 貨幣, 市場 등에만 局限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集團의 利益, 計劃經濟體制 같은 것도 研究對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모든 經濟理論教材에서 經濟學을 「相互競爭의 用途 또는 目的간에 制限된 資源을 어떻게 配分하느냐에 관한 研究」라고 대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社會생활에 대한 「解釋」이라는 結論이 지배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사실 目的에 대한 手段 또는 合理的 行爲의 論理라는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면 종래의 經濟學領域 밖에 속하는 人間活動의 거의 전부가 經濟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식사기도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할 것인가? 또는 江물에 빠진 사람을 자기가 익사하지 않고 구출하기 위해서는 강물이 흐르는 最大速度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등과 같은 사소한 問題들까지도 經濟學의 영역이 되어야 할지 의심스럽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經濟學의 대상과 영역에 관한 公式的인 規定을 되도록 回避하고 다만 經濟學자가 關心을 갖게 되는 主要研究課題를 그때마다 선택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經濟학이란 經濟학자들이 하는 일」(economics is what economists do)이라는 바이너(Jacob Viner)교수의 有名한 定義에서 잘 나타난다.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정의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經濟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答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너교수의 이와 같은 정의는 現實的인 智慧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대체로 恣意的이 되기 쉽고, 둘째로 經濟학이란 정의될 용어가 아니라 연구되어야 할 일련의 課題와 問題點들이며, 셋째로 대개의 定義에는 정의를 내린 사람의 價値觀이 숨어있게 된다는 점을 각각 들 수 있다.

### III. 經濟學의 科學性

經濟學은 그 발달과정에서 보아 倫理學, 技藝(art), 科學으로 취급되어 왔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를 비롯한 中世紀 敎父哲學者들은 經濟學을 應用神學의 한 분야로 취급하였다. 즉 來世에서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準備중에 있는 現世의 理想的 基督教共同社

會의 구성원으로서의 人間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하는 準則을 연구하는 倫理學으로 취급되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重商主義學派에게 경제 학은 國富를 증대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統治者에게 助言하는 「技術」로 여겨졌다. 그 후에는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에 있어서 經濟學은 그 倫理的, 技術的 측면을 계속 확대하여온 반면 學問으로서의 「科學性」도 더욱 높아왔다.

經濟學의 全體 또는 一部가 「科學性」을 갖느냐 하는 根本的인 문제는 科學을 어떻게 規定하느냐에 달려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科學이 무엇이나?」는 科學哲學者들의 基本課題이며 끊임없는 論爭의 對象이 되어왔다. 科學의 本質에 대한 哲學的 究明에 관한 言及은 피하기로 하고 다만 經濟學者 自身들이 經濟學의 性質에 대한 究明과 관련시켜 披歷한 「科學」 또는 「科學性」에 관한 몇가지 見解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슈페터(J. Schumpeter)는 科學을 廣義로 해석하여 「意識的 努力」에 의하여 얻어지고 向上되는 모든 「知識」을 科學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意識的 努力에는 專門化되어 가는 思考의 習慣, 즉 事實을 發見하고 解釋 또는 推理하는 方法(methods) 또는 道具(tools)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리하여 그는 「科學은 道具(또는 分析道具)로 얻어진 知識(tooled knowledge)」라고 規定하였다. 또한 社會學的 側面을 강조하여, 그는 科學이란 研究員, 科學者, 學者들이 自己들 分野에서의 「事實과 方法의 貯量을 계속 向上」시켜 그들의 知識과 思考方式이 一般人(layman)들이 갖고 있는 것과 區別되는 知識分野라고 規定하였다. 요컨대 슈페터는 科學을 廣義로 해석하여 科學이란 「分析道具로 얻어진 知識」이라고 規定하고 科學과 科學者集團과의 連結性을 重視하였다. 즉 科學의 累增的 發展側面과 科學者들의 專門化的 側面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過去 수세기에 걸친 科學發達過程을 통하여 과학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節次나 方法의 領域이 더욱 더 좁혀져 왔다고 하였다. 물론 이 節次的 內容은 對象의 性格과 發達段階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된 特色을 갖는다. 첫째, 이 절차는 우리가 科學의 根據에서 받아들이는 事實(facts)을 「觀察 또는 實驗에 의하여 確證(verify)될 수 있는 事實」에만 局限시킨다. 둘째, 이 절차는 받아 들여질 수 있는 方法의 範圍를 「確證될 수 있는 事實로부터의 論理的 推理」에 局限시킨다. 科學의 廣義의 定義에 의하면 經濟學이 「科學性」을 가지는 領域은 그만큼 넓어지는 반면, 위의 두 가지 科學의 節次的 基準에 의하면 科學性的 領域이 그만큼 좁아진다. 특히 그는 말하기를 經濟學은 音響學(Acoustics)이 科學인 것과 같은 뜻으로는 科學이 아니지만 醫學(Medicine)과 같은 의미에서는 科學이며, 「關聯性이 서로 잘 調整되지 않고 重疊된 研究分野들의 混合體」라고 해

석하였다.<sup>(12)</sup>

코오든교수는 과학은 「物的 혹은 實質世界에 관한 體系的인 知識」(a systematic knowledge of physical or material world)이라고 하는 짧은 定義를 引用하여 1) 體系的인 知識과 2) 現實世界(real world)의 두가지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가 經濟學이 科學이 되기 위하여서는 分析道具만을 開發시킬 것이 아니라 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現實世界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sup>(13)</sup>

헝가리 數理經濟學者 코네이(J. Kornai)는 과학을 論理的, 數學的 科學과 實質科學(real sciences)으로 兩分하였다. 前者에서는 眞理(truth)의 기준은 論理的 基準이며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을 포함하는 後者에서는 假說이 實相(reality)과 一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그는 實質科學의 成熟度(maturity)를 測定하는 指標로서 세 가지를 들었다.

(1) 現實과 비교하여 본 理論의 確證(verification)은 어느 段階에 있는가? 確證은 어느 程度로 信賴할 수 있는가?

(2) 理論의 形式化는 어느 段階에 이르고 있느냐? 理論의 記述은 얼마나 正確한가?

(3) 理論의 理論的 構造와 그 命題들 사이의 位階(hierarchy)가 定立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基準에 비추어 보면 理論物理學의 많은 分野들이 成熟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經濟理論은 成熟되어 있지 않다는 判斷을 내렸다. 一般均衡經濟理論은 (2)와 (3)의 基準만을 滿足시킬뿐 (1)의 基準(즉 假說의 確證)을 滿足시켜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는 一般均衡理論은 實質科學의 理論이 아니라 단순한 知的 實驗에 不過하다고 하였다.<sup>(14)</sup>

이제 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을 우리 나름대로 규정하여 보자. 경제학은 現實의 說明, 豫測 및 統制를 그 목적으로 하며 經濟學者간에 首肯되는 研究方法 및 節次에 걸쳐서 얻어지고 向上되는 知識을 體系化한 集合體라고 規定할 수 있다. 경제학은 社會科學이므로 社會구성원으로서 또는 경제활동의 참여자로서의 人間의 行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일반과학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은 經濟的 經驗의 共通된 屬性의 설명 또는 예측을 시도하는 一般理論(假說)의 지속적인 발달을 그 特色으로 한다. 經濟理論은 개인적, 社會적 目標達成을 위한 政策樹立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社會統制의 수단이 된다.

그러면 이제 一般科學 특히 經濟學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기를 주장하는 科學的 方法 또는 節次를 理論經濟學의 構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15)</sup>

(12) J.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London, 1954, pp.7-8.

(13) R.A. Gordon, *op. cit.*, pp.1-2.

(14) J. Kornai, *Anti-Equilibrium—On Economic Systems Theory and Tasks of Research*, Amsterdam, 1971, pp.6-17.

(15) Brown and Elliott, *op. cit.*, pp.1-13.

經濟理論의 構造 : 경제 문제에 관한 理論的인 研究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段階, (1) 假定(assumption) 또는 公理(axiom)의 設定, (2) 일련의 가정으로부터 理論(theory), 模型(model), 또는 假說(hypothesis)의 도출, (3) 理論, 模型 또는 假說의 妥當性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1) 假定(assumptions) : 넓은 의미에서 가정이란 해당과학에서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조건을 뜻한다. 가정은 공리로서 받아들여지며 理論이나 假說의 바탕이 되는 前提로 사용된다. 假定의 변화는 이론이나 가설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假定은 資源-技術的(resource-technological), 制度的(institutional), 心理·動機的(psychological-motivational)인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1) 資源과 技術에 관한 假定은 생산요소와 산출량 사이의 관계를 規定하고 技術의 一定한 수준을 전제한다. 2) 制度的인 假定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컨대 사회주의 對 자본주의, 금융제도 및 증권시장의 유무 등을 말한다. 心理·動機的 假定은 주로 경제의 意思決定單位가 추구하는 목표, 이 목표추구에 있어서의 行動原理, 심리적인 변수들(만족 또는 효용)의 관계 등을 規定한다.

(2) 假說(hypotheses) : 假說 또는 理論的인 一般化는 經濟變數의 움직임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 예측에 필요한 방법을 제공한다. 經濟變數란 경제학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하며 때에 따라 변한다. 예로서 소득, 산출량, 투자, 소비 및 저축과 같이 시간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流量」(flow), 富(wealth) 및 자본량과 같은 貯量(stock), 價格과 같이 지출의 흐름을 산출량(또는 구입된 生産要素)의 흐름으로 나눈 比率 등을 들 수 있다. 經濟變數간의 관계에 대한 理論的인 一般化는 從屬變數, 獨立變數 및 「다른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ceteris paribus*)라는 假定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從屬變數란 假說이 說明 또는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를 말하며 獨立變數는 從屬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한다. *ceteris paribus* 조건은 從屬變數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정된 獨立變數 이외의 모든 요인은 不變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ceteris paribus*라는 가정을 바꾸면 理論的 假說이 지니는 함수관계의 위치를 변경시킨다. 독립변수로 선택된 것 이외의 要因들이 변동하면 변수간의 함수적 관계 그 자체를 變化시킨다.

(3) 假說의 檢證 : 經濟學은 理論的인 學問이며 동시에 經驗的인 학문이므로 經驗的 妥當性에 관한 檢證은 論理的 妥當性에 관한 檢證못지 않게 중요하며 이 두 가지 검증은 서로 補完的인 관계에 있다. 즉 훌륭한 理論은 現實에 관한 훌륭한 說明이나 豫測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경제학에서의 이른바 「科學的」方法에 대하여 몇 가지 批判 및 問題點을 아래에 살펴보자.

### 1. 假定の 現實性的의 問題

1940年代 초반부터 經濟理論에 있어서의 假定(assumptions)의 役割과 現實性問題를 둘러싸고 많은 論爭이 일어났다. 만일에 理論을 規定하고 있는 基本假定들이 「非現實的」(unrealistic)이면 그 理論은 妥當性(validity)과 有用性(usefulness)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經濟理論教材에서 찾아볼 수 있는 通常的인 立場이다. 이에 대하여 學派에 따라 각기 다른 立場을 취하게 된다.

① 극단의 經驗主義(empiricism)에 의하면 事前的 假定이나 形式上的 論理보다는 經驗的 「事實」과 特殊한 事例의 蓄積을 重視하여 왔다. 이 立場은 少數의 單純化를 위한 假定의 有用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無數한 特殊事例들의 蓄積을 통해서 經驗的 一般化를 試圖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② 다음으로 假定의 現實性(realism)을 重視하는 學派를 들 수 있다. 論理的 構造나 模型의 有用성은 認定하나 個別假定의 現實성을 중요시하며 現實의 問題의 具體的 分析, 歷史的 考察, 比較分析 등을 통하여 一般理論보다는 特殊理論의 導出을 企圖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③ 實證主義學派(positivists)의 立場을 들 수 있다. 프리드만(M. Friedman)教授를 포함한 시카고學派의 立場에 따르면 單純化된 假定의 有用성을 強調했으며 經濟理論의 妥當성은 假定의 記述的인 現實性보다는 그 理論의 論理的 歸結 또는 含蓄性(implications)이 現象을 얼마나 잘 豫測(prediction)하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취한다.<sup>(16)</sup> 假定이야 現實적이든 非現實적이든 關係없이 豫測의 正確性만이 理論의 妥當성을 決定하는 唯一한 基準이라는 프리드만教授의 方法論의 立場은 많은 論難을 일으켰다. 大多數의 學者들이 프리드만교수의 立場에 反對하고 있다. 이 爭點에 관해서는 곧 뒤에 자세히 論議하겠다.

④ 一般均衡論 및 「公理學派」(Axiomatic School)의 立場을 들 수 있다. 이들은 一般均衡理論이 여러가지 可能한 경우를 모두 包含할 수 있도록 假定들을 최대한 普遍化시키고 있다. 그 결과 模型을 다시 明細化시키지 않고는 現實世界에 관한 豫測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公理에 의한 接近方法은 現實을 近似(approximation)로 나타내는 單純化보다는 數學 및 論理上的 「經濟性」을 強調한다. 즉 주어진 假定으로부터 最大의 結果를 또는 주어진 結

(16) Milton Friedman,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1953, pp.1-43.

果를 얻기 위하여 가장 「약한」假定條件을 세운다. 자칫하면 지나친 形式主義에 흐르기 쉬우며 現實의 經濟問題의 分析보다는 模型을 보다 엄밀하게 보다 멋지게 보다 一般的으로 만드는 細部作業에 精力을 集中하고 있다는 非難을 받고 있다.<sup>(17)</sup>

이제 假定의 現實性에 관한 프리드만教授의 立場을 검토하여 보자. 理論은 그 說明對象이 되는 現象의 여러 狀態들 가운데서 「共通되고 重要的 要素」 몇 가지만을 택하여 抽象化하지 않고서는 그 現象을 說明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따라서 理論의 假定들은 어쩔 수 없이 「非現實的」이거나 「거짓」이 되므로 理論의 妥當性은 이를 구성하는 假定들이 現實性을 갖느냐에 있지 않고 理論이 現象에 대하여 充分히 近似한 豫測을 주느냐의 興否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重要的 것은 프리드만教授의 立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

첫째로, 만일 그가 理論이란 관찰할 수 있는 現象을 豫測하는데 도움이 되는 分析道具에 지나지 않으며 眞實과 虛僞의 區別이 엄격히 검토되어야 하는 참된 命題라고 보지 않는다면 假定의 現實性과 非現實性의 엄격한 區別은 그의 말대로 問題視되지 않는다.<sup>(18)</sup>

둘째로, 만일 非現實的인 理論이 豫測에 不可缺한 道具일뿐 아니라 여러가지 部類의 現象을 비교적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의 立場은 심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뮤엘슨教授는 프리드만교수의 立場을 “F-Twist”로 命名하여 비꼬았고 그 論理的 矛盾을 지적하였다. 一聯의 假說(또는 公理)들의 集合으로 이루어진 理論을 B라 하고 理論이 가지는 假定을 A라 하고 B의 論理的 結果를 C라 하면, 사뮤엘슨教授는 말하기를 “F-Twist”는 C가 經驗적으로 妥當하면(즉 現實的이면) 비록 A가(따라서 B도) 經驗적으로 妥當하지 않더라도(즉 非現實的이라도) B는 重要하다는 立場이라고 解明하였다. 그러나 論理的 分析으로 보아  $A=B=C$ 가 된다고 밝힘으로써 “F-Twist”의 矛盾을 指摘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F-Twist”의 動機는 시카고學派가 주장하는 完全競爭自由放任模型과 利潤極大化假說을 방어하는데 있으며 이 때문에 方法論까지 「비틀어」(twist) 놓았다고 꼬집었다.<sup>(19)</sup>

쿠프만스(T.C. Koopmans)교수 역시 이와 비슷한 立場을 취했다. 그는 理論의 假定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져오는 直接, 間接의 모든 論理的 結果(implications)까지도 빠짐없이 經驗적으로 檢證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프리드만교수의 論理的 矛盾을 비판하였다. 더

(17) M. Bronfenbrenner, “A Middlebrow Introduction to Economic Methodology,” *The Structure of Economic Science*, S.R. Krupp ed., Englewood Cliffs, 1966, pp.16-17.

(18) E. Nagel, “Assumptions in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3, pp.211-219.

(19) P.A. Samuelson, “Problems of Methodology—Discu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3, pp.231-236.

우기 理論의 豫測과 論理的 結果를 檢證할 수 있는 機會가 많지 않고 또 檢證의 結果도 不確實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證據들은 間接的인 것이든지 直接的인 것이든 假定이든 結果이든 간에 모두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함으로써 프리드만教授의 「非現實的」인 立場을 지적하였다.<sup>(20)</sup>

## 2. 經濟模型의 形式化와 經驗的 根據의 稀薄

經濟學의 現況에 관해서 가장 빈번한 批判은 經濟模型의 形式化 특히 數理的인 洗鍊에 지나친 力點이 주어진 反面 이들 模型의 經驗的 根據가 희박하고 現實的인 經濟問題 또는 經濟現象과의 關聯性이 적다는 것이다. 이미 序論에서 引用된 바와 같이 레온티에프교수는 數理經濟模型들은 經驗的 基盤이 약하고 理論的 假定들이 觀察을 통하여 確證되지 않았기 때문에 現實世界 또는 現實問題와의 關聯性이 거의 없다고 自我批判을 하고 있다. 또한 하안 교수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過去, 現在, 未來에도 존재한다고 믿어지지 않는 一般均衡經濟狀態의 存在(existence)의 證明과 模型의 數理的 洗鍊 등에 지나치게 研究 및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고 批判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現實世界를 설명하는데 適合치 않은 模型을 계속 形式化하는데 많은 研究資源을 投資하는데서 오는 不條理를 슬프게 생각한다고 告白하였다.

코네이교수는 「形式的 模型은 經濟學을 포함한 모든 實質科學(real science)에 있어서의 理論的 研究의 道具의 구실은 할 수 있으나 模型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로서 實質科學理論이 이루어졌다고 保證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數理經濟學은 形式上의 理論的 構造를 設定하는에는 成功하여 일단 實質科學과 같은 印象을 주지만 實質科學의 가장 중요한 基準이 되는 理論的 確證(verification)이 充足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抽象的 理論的 設定에 投入된 作業量에 비하여 假定과 論理的 結果를 檢證하는 作業量은 아직까지 훨씬 未洽하다고 하였다.<sup>(21)</sup>

펠프스 브라운教授는 이미 序論에서 간단히 言及된 바와 같이 經濟理論에서의 人間行動에 대한 假定들이 觀察을 거쳐 抽象化된 것이 아니라 卽興, 慣例, 便宜, 直觀, 常識 등에 따라 단순히 「假定」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經濟理論의 數理化에 앞서 人間行爲에 관한 觀察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sup>(22)</sup>

數理經濟理論의 形式化와 관련된 비난의 하나는 이미 序論에서 引用한 바와 같이 數理經

(20) T.C. Koopmans. *Three Essays on the State of Economic Science*, New York, 1957, pp.137-140.

(21) Kornai, *op. cit.*, Amsterdam, 1971, pp.16-17.

(22) E.H. Phelps Brown, "The Underdevelopment of Economics," *Economic Journal*, March 1972 p.3.

經濟學者들의 報酬, 昇進 등의 機會가 相對的으로 좋아서 보다 優秀한 學徒들이 이 分野에 關心을 갖게 되어 現實을 外面하는 風潮가 더욱 助長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연구대상이 되는 主題의 選擇과 分析에 사용될 道具(tools)사이의 相互作用을 들 수 있다. 原則的으로 道具란 手段이며 「下人の 身分」을 갖는다. 分析에 사용될 道具의 選擇은 이미 選擇된 問題의 性質과 資料의 有無 등에 따라 決定된다. 그러나 科學의 發達史를 살펴보면 道具가 그 自體의 「生命」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問題의 解決이 필요한 道具가 없어서 지연되기도 하였고 어떤 道具가 存在하기 때문에 새로운 問題의 存在를 認識할 수도 있었다. 어쨌든 道具의 變化와 問題選擇의 變化는 서로 밀접한 關係에 놓여 있다. 경제학에서 예를 들면 「問題」는 社會의 與件과 必要性에 따라 어느 程度까지는 提起되는데 비하여 「道具」와 道具使用法의 習得은 研究者가 投資한 資產인 것이다. 따라서 自然히 問題의 選擇에는 客觀性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研究者個人의 利害關係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數學經濟學에 깊은 訓練을 받은 學徒가 選擇하는 問題는 社會가 필요로 하는 實際問題보다도 自然히 연구자의 道具와 興味에 알맞는 問題, 예컨대 模型의 數理化에서 나타나는 枝葉末端的인 技術的 問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經濟學術誌에 실린 많은 論文들의 제목을 훑어 보아도 잘 알 수 있다.<sup>(23)</sup>

이제 위에서 열거한 비판과 관련하여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數理經濟理論의 形式化에 대한 相對的 強調를 비판한다고 해서 결코 經濟理論의 設定에서 數學原理의 使用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數學原理는 앞으로 經濟학에서 더욱 더 사용될 公算이 크다. 純粹理論分野에서 뿐만아니라 應用經濟分野에서 그 必要性이 더욱 인정되어 가고 있다.

둘째, 理論的 研究의 作業量에 비해서 經驗的 研究의 作業量이 相對的으로 不足하다고 하더라도 經驗的 研究의 絕對量은 크게 增加되었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 3. 經濟現象의 性質과 一般化

物理學者 플랑크(Planck)가 經濟學者 케인즈에게 「經濟學은 物理學보다 어렵다」(Economics is harder than physics!)고 말했다는 有名한 이야기는 우리 經濟學徒에게 示唆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구태여 이 名句에 함축된 의미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첫째는 物理學이 다루는 自然現象과는 달리 經濟學이 다루는 社會現象은 매우 복잡하고 늘 進化 變遷하기 때문에 연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둘째는 物理學의 方法論이 經濟學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23) Koopmans, *op. cit.*, pp.169-170.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人間行動과 社會現象은 매우 複雜하고 多樣하며 異質的이라는 사실은 社會科學의 研究를 그만큼 어렵게 만들며 物理學的 方法論의 使用을 不可能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경제현상이 복잡하고 異質的이므로 理論의 一般化는 그 內容을 희생시켜야 비로소 일게 된다. 可能한 事例를 더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個別事例에 대하여 더욱 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결국 現象과 遊離된 理論化야말로 경제현상의 성질을 잘못 해석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經濟現象의 複雜性과 異質性은 經濟研究를 여러가지로 어렵게 만든다. 첫째는, 社會現象을 理解하기 위하여 自然科學에서와 같은 統制된 實驗을 거쳐 필요한 資料를 入手할 수 있는 機會가 매우 드물다. 둘째는, 經濟學의 假說에 대한 經驗的 檢證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다. 假說이 틀리다고 立證하기에는 經驗的, 統計的 結果의 신뢰도는 매우 낮으며 때에 따라서는 서로 相衝되는 結果를 보여준다. 따라서 똑같은 檢證結果도 主觀的 解釋과 價値判斷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自然科學에 비하여 훨씬 많다. 셋째는, 研究對象인 人間自身들이 經濟理論을 習得하기 때문에 그 理論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 理論의 檢證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歐美의 企業인들이 케인즈經濟理論을 받아들일 때 케인즈理論에 입각한 經濟安定政策이 더욱 큰 效果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sup>(24)</sup> 넷째는, 經濟學의 研究對象인 社會現象은 時間이 지남에 따라 進化變遷된다는 점이다. 物理學에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 一般均衡經濟理論에서 外生變數 및 係數(예컨대 消費者의 選好, 技術, 經濟制度, 權力構造 등)등의 「構造的 要因」들이 급속히 변화되어 均衡體系自體의 存立을 不可能하게 만든다. 여러 要因들이 同時에 作用하고 급격히 변할 때에 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概念的 體系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다섯째는, 經濟理論과 經濟政策의 密着은 利害關係와 價値判斷이 경제학연구에서 연구과제의 選定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구결과와 해석, 政策建議 등에 이르기까지 크게 作用한다.

經濟現象의 성질로 말미암아 經濟學은 경제현상의 지극히 一般的이고 同時에 現實性있는 規則性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經濟現象에는 뉴우톤의 法則과 같이 數式化되고 넓게 적용될 수 있는 規則性이 發見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sup>(25)</sup> 統計的 方法에 의하여 얻어진 規則性이라 해도 時間 및 空間에 걸쳐 심히 制限되어 있다. 모든 制度的 與件에 적용될 수 있는 妥當性과 現實과의 關聯性을 가진 經濟理論이나 一般化는 不可能한 것이다. 實

(24) M.J. Roberts, "On the Nature and Condition of Social Science," *Daedalus*, June 1974, p.56.

(25) *Ibid.*, p.61.

際經濟現象을 說明하고, 豫測하고, 統制하기 위해서 단순한 개념과 모형을 技藝家와 같은 솜씨로 잘 다루어 하나 하나씩 차례로 연구를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쿠프만스가 自然科學의 理論과 달리 經濟理論을 「模型의 連續」(sequence of models)이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26)

결국 經濟學의 對象의 性質로 말미암아 經濟學은 物理學같은 精密科學이 되지 못한다. 對象의 性質, 多樣한 接近方法, 技藝性的 重視 등으로 보아 經濟學은 솜씨가 말한대로 醫學으로, 또는 케인즈가 말한대로 齒科醫學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 IV. 價値判斷의 役割

實證經濟學과 規範經濟學의 區分問題처럼 오랫동안 方法論上的 爭點이 되어온 것도 드물다. 이 區分에 대한 現在의 通說을 살펴보자. 實證經濟學(positive economics)은 假定에서 出發하여 說明的 또는 豫測的인 假說을 設定하고 나아가 假說의 檢證에 이르고 다시 假定과 假說을 修正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와 같은 節次의 目的은 現實을 「있는 그대로」(what is) 實證的인 說明을 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規範經濟學(normative economics)은 현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what ought to be)는 當爲性에 관한 價値判斷을 論理的 分析和 經驗的 證據에 의하여 設定하고 支持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한다. 規範經濟學은 實證經濟學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假定, 公理, 其他 條件들을 명시하고, (2) 이들로부터 所望스러운 目標을 설정하고, (3) 이 設定된 目標들을 그들이 미칠 결과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檢證한다. 그러나 實證經濟學에 비하여 두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는, 實證經濟學의 假說은 記述的(descriptive)인데 반하여 規範經濟學의 假說은 處方的(prescriptive)이다. 둘째는, 만일 實證的 經濟理論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존재하는 현실 그대로를 더욱 잘 說明 豫測할 수 있도록 이론이 修正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만일 現實이 規範的 處方に 맞지 않으면 設定된 價値判斷에 現實을 더욱 맞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7)

스미드 이전의 經濟學은 規範的인 學問이었다.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經濟學은 規範的 要素와 實證的 要素의 混合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완전경쟁적인 시장(가격)제도의 19세기 모형은 그 자체가 경제현실의 實證的 說明인 동시에 理想的 經濟制度의 規範이

(26) Koopmans, *op. cit.*, p.142.

(27) Brown and Elliott, *op. cit.*, pp.1-13.

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쳐 경제학의 과학적 측면이 더욱 발달됨에 따라 價値判斷보다는 科學的인 理論의 檢證이 더욱 강조되었다. 功利主義의 厚生經濟學이 심한 공박을 받고난 뒤 效用의 對人間比較(interpersonal comparison)를 회피하는 파레토理論에 기초를 둔 新厚生經濟學이 1930년대부터 生成 發達하였다. 그러나 이 新厚生經濟學 역시 經濟學은 實證的 要素만을 지녀야 한다고 主張하는 일부 學者들에 의하여 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厚生經濟學에 대한 學者들의 立場이 어찌하든간에 現實의 經濟體制의 運營과 成果에 대한 評價는 모든 經濟學徒들의 궁극적인 所望이 아닐 수 없으며 經濟分析作業을 추진하는 原動力이 아닐 수 없다.

사실 厚生經濟學의 모든 要素를 完全히 제거한 經濟學이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相互競爭的인 目的간에 최소한 資源을 配分하는」 문제는 評價基準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논의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資源의 效率的 配分」이라는 用語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게 된다. 경제분석에서 競爭的 價格制度의 結果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價値判斷이 된다. 價格制度는 百萬長者의 1원이든 구두닥이소년의 1원이든간에 아무런 차별없이 똑같이 1원으로 評價하는 獨特한 評價基準인 것이다. 또한 一定한 價値判斷의 前提가 없으면 目的과 手段의 區分조차 어려워진다. 결국 경제분석에 있어서 경제학자는 價値判斷을 회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28)

그럼에도 不拘하고, 막스 웨버가 社會科學에서의 倫理的 中立性的의 先行條件을 規定함으로써 價値判斷問題의 解決을 試圖한 이래 經濟學分野에서의 價値判斷의 役割에 관한 論難은 근 100년 동안이나 거듭되어 왔다. 「經濟分析에서 價値判斷은 意識의이든 無意識의이든간에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經濟學을 科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設問이 論爭의 核心이었다.

사실 倫理的 中立성에 관한 웨버의 正統的 立場은 論理의 問題에 不過하였다. 즉 「記述」(description)에서 「處方」(prescription)을 「假說」(hypotheses)에서 「規範」(norms)을 “what is”에서 “what ought to be”를 演繹할 수 없다는 立場이었다. 다시 말하면 經濟의 行爲에 관한 假說이 論理上으로 보아 倫理的 含蓄성을 수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立場은 新古典學派에 의하여 대체로 견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 正反對로 뮈르달에 따르면 經濟學에는 필연적으로 價値觀이 含蓄되며 中立的인 社會科學이란 存在한 적도 없고 또 論理上 存在할 수 없다고 한다. (29) 이와 같은 反對立場은 다음의 여러가지 見解들에 그 根據를 두

(28) M.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Homewood, 1968, pp.676-677.

(29) G. Myrdal, *The Political Elements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y*, London, 1953.

고 있다고 본다.<sup>(30)</sup>

(1) 經濟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問題의 選擇부터가 價値觀 또는 理念的 偏見에 영향을 받는다.

(2) 經濟學에는 檢證되지 않은 여러 競爭的인 假說들이 있으며 어느 한 問題에 대하여 옳은 解答으로 어느 假說을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은 자연히 價値觀의 영향을 받게 된다.

(3) 事實에 대한 순수한 記述이 어떤 用語와 文體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記述되지 않게 「說得」의 내용을 갖게 된다.

(4) 價値基準이 주어지지 않으면 手段과 目的이 명확하게 分離되기 어려우며, 政策目標가 事前에 外部로부터 뚜렷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經濟政策建議에는 經濟學者個人的 價値判斷이 다르게 된다.

(5) 실제 經濟政策的 提言에는 效用의 對人間比較가 內包되며 後者は 測定될 수 없으므로, 厚生經濟學의 應用에는 價値判斷이 다르게 된다.

이 다섯가지의 主張들은 모두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 主張이 倫理的 中立性에 관한 正統的 立場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經濟理論에 社會的 價値判斷을 포함시켰다고 그 科學性 또는 倫理的 中立性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規範經濟學이 범하기 쉬운 잘못은 가치판단에 대하여 批判的 評價나 經驗的 檢證을 가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

어쨌든 經濟政策에 관심을 둔 學者들은 實證的 問題와 規範的 問題間的 相互依存性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고 價値判斷과 社會的 目標를 보다 明白히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經濟學者가 政策建議를 할 때 그들의 建議의 實證的 基盤과 規範的 基盤을 明確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再言을 요하지 않는다.

## V. 結 論

첫째, 現代經濟學의 核心部分을 이루고 있는 數理經濟學과 計量經濟學이 과연 「科學性」을 갖느냐 하는 設問에는 슈페터와 같이 科學을 廣義로 해석할 때에는 肯定的인 答을 줄 수 있으나 코네이가 제시한 實質科學의 成熟度를 測定하는 엄격한 基準에 따르면 否定的인 答을 내릴 수 밖에 없다. 精密科學에 속하는 理論物理學의 여러 分野와는 달리 經濟學은 經驗的 確證의 基準을 充足시키지 못한 段階에 놓여 있으므로 實質科學으로는 아직 「未熟」한

(30) 價値判斷의 役割에 관해서는 다음 두 文獻에서 자세히 取扱되고 있다. Roberts, *op. cit.*, pp.53-55. Blaug, *op. cit.*, pp.676-678.



學問分野라고 規定할 수 있다.

둘째, 經濟學은 그 研究對象의 性質에 알맞는 自體의 方法論의 接近을 開發하여야 한다. 物理學의 方法은 經濟現象研究에 그대로 適用될 수 없는 것이다. 自然現象과는 달리 社會現象은 複雜多樣하고 異質的이어서 正確하고 普遍的인 規則性을 찾아보기 어렵다. 研究對象이 複雜하고 異質的일 때 一般性은 具體的 內容을 희생해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되도록 많은 事例를 모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별 事例에 관하여 더욱 說明할 수 없게 된다. 결국 現象과 遊離되는 一般化가 되어버린다. 一般均衡理論의 계속적인 形式化와 그 經驗的 基盤의 취약성은 現象의 複雜性 및 異質性을 無視하고 一般化를 지나치게 追求하였기 때문에 招來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方法論上으로 보아 구태여 비유한다면 經濟學은 物理學보다는 工學이나 醫學에 가깝다. 經濟學의 概念的 體系는 單純化된 模型이나 때에 따라서는 粗雜한 「스케치」에 불과한 것이 많다. 現象이 복잡하고 概念이 正確하지 않을 때 現實을 說明, 豫測, 統制하는데 概念化되지 않은 「暗默의 知識」(tacit knowledge)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사실 이와 같은 知識, 洞察力, 技藝 등은 明白하게 概念化, 形式化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現實世界를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런 종류의 「暗默의 知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科學(science)과 技藝(art)의 區分은 程度의 問題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精밀하고 包括的인 理論이 粗雜한 模型보다 좋겠으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單純하고 粗雜한 모형뿐이라면 그대로 使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經濟學에서 말하는 적지 않은 「理論」들이 아직 概念化가 完成되지 않거나 統計的 檢證을 위해 잘 整理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해서 비난할 것은 못된다. 이와 같은 理論들이 重要한 現實問題에 着眼하여 이를 論議할 수 있는 概念的인 「테두리」를 제공하고 後日에 이로 부터 檢證될 수 있는 보다 完全한 假說을 얻을 수 있다면 실로 가치있는 「理論」들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가 經濟模型의 數理化를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數理經濟理論의 關心과 對象이 現實問題를 指向해야 하고 經驗的 檢證이 더욱 企圖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數學은 앞으로 순수이론분야뿐만 아니라 응용분야에서도 더욱 더 사용될 公算이 크다고 본다.

네째, 經濟分析體系에서 外生變數 및 係數로 취급되는 構造的 決定要因들 (예컨대 嗜好, 企業動機, 技術水準, 政府權力, 消費性向 등)은 「주어진 것」으로 假定되어 다른 學問에서 研究해줄 것으로 미루어 왔다. 그러나 人間의 經濟行爲는 이와 같은 構造的 要因들과 분리해서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 經濟學과 隣接學問과의 엄격한 境界區分과 지나친 知的 分業은 現實世界指向的인 經濟研究를 어렵게 만든다. 이 점에서 經濟研究는 「現地決定的」(field-

determined)이어야하고 「學問分野決定的」(discipline-determined)이어서는 안된다고 한 펠프스 브라운教授의 論評은 실로 正鵠을 찌른 것이다. 그는 이어서 經濟研究도 醫學研究에서와 같이 「臨床實習的」方法(clinical method)을 採擇해야 한다고 提案하고 있다.<sup>(31)</sup> 具體的인 經濟問題에 관하여 診斷하고 處方하기 위해 研究者가 現地에 나가서 직접 그 主題를 다룰 때 여러가지 利得을 얻는다. 研究者가 다른 方法으로는 얻을 수 없는 資料에 접할 수 있게 된다. 이 方法은 연구자로 하여금 主題와 이를 理解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關心을 集中시킨다. 다시 말하면 道具에 알맞는 主題를 택하지 않고 主題에 알맞는 道具를 택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方法은 研究者로 하여금 事態의 總體를 파악하게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要因들을 經濟學領域의 境界에 구애받지 않고 均衡있게 取扱할 수 있게 한다. 經濟分析에서 臨床實習方法을 적용하는 것은 비교적 生疎하지만 現實問題에 대한 綜合的 接近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可能性을 提示한다. 既存方法들과 並行하여 사용될 때 그들의 缺點을 補完해 줄 것으로 본다.

(31) Phelps Brown, *op. cit.*, pp.7-8.